아시아 대중음악 광주서 꽃피운다

아시아 음악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가칭 '아시아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내년 10월 광주에서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1일 "내년에 국비 6억원을 포함해 총 8억원을 들여 아시아 월드뮤직페스티벌을 창설, 광주에서 첫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칭 '아시아 월드뮤직 페스티벌'

문화수도 추진단, 내년 10월 개최

월드뮤직은 영어권 팝음악을 제외한 각 지역의 대중음악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로서 각 나라 민속음악에 기반하여 대중음악과 접목되어 현대화한 음악을 칭한다.

이 행사는 프랑스 샹송, 포르투갈 파두, 브라질의 보사노바 등 월드뮤직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추진단은 행사를 통해 음원을 발굴해 문화중심도시의 대표적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육성, 광주의 음원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추진단은 음원산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국립문화전당의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에 견줄 광주의 대표적인 전문 음악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사단법인을 구성해 행사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를 지난 5월 출범한 데 이어 내년에는 아시아와의 교류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커뮤니티 사업'의 협력 프로그램을 5·18 민주화운동 30주년과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부는 글로벌CGI(컴퓨터 형성이미지)센터는 예정대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광주의 문화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훈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광주에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고품격 전문 음악페스티벌이 생긴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월드뮤직페스티벌은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종플루 백신 27일부터 접종

전 국민의 35%인 1천716만명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역요원, 환자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부 군인이 가장 먼저 접종을 하고 이어 초·중·고 학생 → 6개월~만6세 및 임신부 → 노인, 만성질환자 순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신종플루 유행을 억제하고 감염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과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아! 안중근

의거 100주년 특별전

오는 26일 안중근 의사가 조선과 중국 침략의 원흉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의거 100주년을 앞두고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이 개최하고 있는 안중근 특별전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모이고 있다. /연합뉴스

안중근을 소재로 한 엽서. 발행시기는 미상이며 개인 소장이다.

안중근이 뤼순감옥 투옥시절인 1910년 2월에 쓴 유묵 '독립(獨立)'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때 안중근이 사용한 권총.

해남 화원관광단지 사업 '엉망'

관광公, 하수처리·골프장 운영 시설 미비 막대한 예산 손실

이정현 의원 국감 지적

'한국의 두바이'로 홍보한 '블랑코 비치'가 1년 도 못돼 폐쇄된 것은 한국관광공사의 엉터리 입찰과 부실한 사전계획 수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해남 화원관광단지사업이 하수처리시설 및 골프장 운영시설 미비로 개장을 미루는 등 '졸속'으로 추진돼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온 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1일 한국관광공사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사진〉 의원에 제출한 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두바이' '국내 최초 인공해수욕장'이라고 홍보하던 '블랑코 비치' 사업이 사업자 선정과 사전계획 수립에서부터 '부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공사는 해수욕장 사업자 선정 및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지난해 7월15일 시행하고 공고 당일 입찰을 마감한데다 공고방법도 지사 사무실과 면사무소 앞에만 게시공고만 했다.

제안서 평가 또한 서남 지사장 단독으로 심사하고, 개장에 앞서 사전계획 수립이 부실해 애초 계획대비 운영비용과 수익에 격차가 발생해 2억 원 상당의 운영적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공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정룡~화원관광단지 간 4.4㎞ 상수도 인입공사비 13억3천900만 원을 해남군에 부담토록 해 해수욕장 운영수익과는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현 의원은 "입찰과 계약업무의 기본절차도 무시·위반하는 관광공사가 과연 공기업인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해수욕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시설을 보완 재개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또 이날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관광단지 내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시설설계도 하지 못해 호텔 부지 등이 분양되지 못했다"면서 "또한 부담금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진청자 재감정 말 맞추기 했나

"郡, 최초 감정자와 친분 인사 감정위원으로 추천"

한나라 성윤환 의원 주장

'고려청자 바가지 매입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은 21일 "강진군이 청자의 최초 감정자들과 친분 있는 인사 2명을 재감정위원으로 동원, 말맞추기를 통해 잘못을 숨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진행된 청자 재감정에 참여한 4명의 감정위원 가운데 공모, 김모씨는 2007년 참외형 주자 가격을 부풀렸던 감정위원인 정모씨와 오랜 친분이 있거나, 사제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감정에서 참외형 주자(2007년 구입)와 정병(2009년 구입)에 대해 각각 1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나머지 2명은 참외형 주자에 대해 1억원 미만, 3~4억원 정도라고 가격을 매겼다. 정병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성 의원은 "이런 사실로 미뤄 강진군이 겉으로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가격 부풀리기' 주동자들과 결탁해 사실을 숨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언론에서 8명의 감정위원을 추천받았는 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사해 모 대학 교수에게 추천을 의뢰해 공모, 김모 위원을 위촉했다"며 "위원들의 친분 관계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성윤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참외형 주자는 시가 9천만원, 정병은 1억5천만원 선에 불과하며 강진군이 턱없이 높은 가격에 청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낮日만평

- 김종두

지지율 하락은 고사하고 듣기가 민망

"방송광고 경쟁체제 단계적 도입해야"

신문협회 입장 발표

한국신문협회는 21일 방송광고 판매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단계적·점진적 도입 ▲지상파 방송광고만 판매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 등 3개항의 입장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방송광고 판매의 전면적인 경쟁체제 도입은 전체 언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여론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이에 따라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대행 영역은 지상파 방송에 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케이블TV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지는 매체의 광고와 지상파TV 광고를 연계한 끼워팔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필상기자 kps@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삼성열린보험대리점(갑)에서는 2009. 10. 21. 주식회사 삼성넵코 보험대리점(을)에서는 갑은 날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을'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갑' 주식회사 삼성열린보험대리점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217-4 301호
대표이사 안 철 환

'을' 주식회사 삼성넵코 보험대리점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887-40
대표이사 박 정 섭

분 할 합 병 공 고

2009년 10월 19일 각각 주주총회결의로, 혁진건설주식회사(이하 "갑")의 석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되는 부분을 주식회사 두경건설(이하"을")이 합병하여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되, 관계회사는 상법 제 530조의 9 제 3항의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갑" 혁진건설주식회사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770-4
대표이사 김 종 석

"을" 주식회사 두경건설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770-4
대표이사 장 숙 경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9. 10. 19.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9. 12. 22.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9년 10월 22일

에스엔에이치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0-33
대표 청산인 남 재 희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반도메덕스(이하"갑")와 주식회사 이레디엔씨(이하"을")는 2009년 10월5일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각사의 채권자는 2009년 11월22일까지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관계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주식의 병합이 필요하오니 2009년 11월22일까지 관계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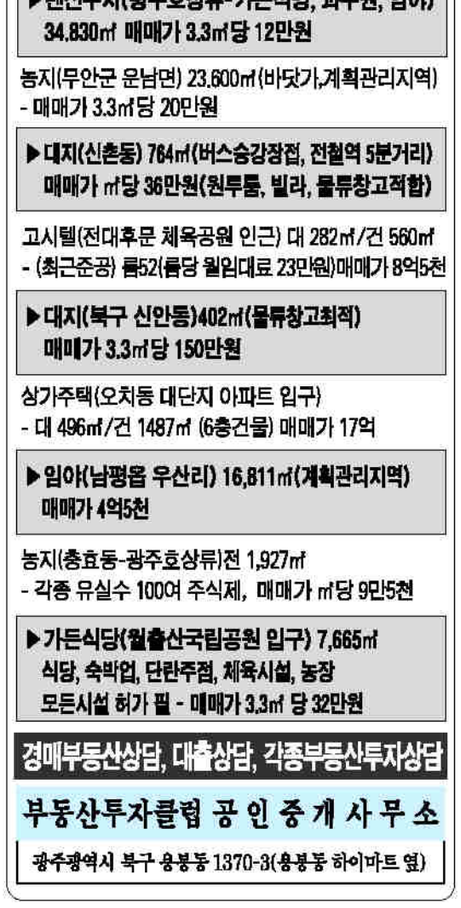
2009년 10월 22일

"갑" 주식회사 반도메덕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211-10
대표이사 박 인 선

"을" 주식회사 이레디엔씨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311-15
대표이사 박 인 선

산행안내 14면

상속한정승인공고

방 희인섭(350615-1566412)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느단 552
- 한정승인수리일:2009. 10. 19.
- 공고기간:2009. 10. 22~2009. 12. 21
- 연 락 처:목포시 산정동 994-4 중앙하이츠 2-805 최 윤 환